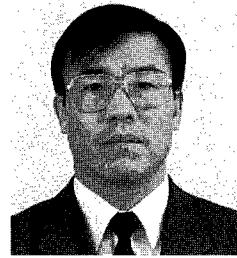


# 적당히, 요령껏 해서 통용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김 선 중  
한국가금학회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

**암** 답하기만하던 정축년이 가고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모두 공감하듯이 해가 바뀌어도 우리 양계산업의 상황은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다.

양계산물의 수입개방과 IMF체제에의 적응은 마치 맨발과 알몸인 채로 가시밭 길을 헤쳐가야하는 형상에 비유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야말로 양계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사고와 발상도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줄기차게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계나 산란계 모두 향상은 커녕 저하된 경우가 일반적이

라고 본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개방의 파고에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일본시장에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 잇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뭐니뭐니하여도 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질병과 환경관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투약과 예방백신 위주에서 질병의 차단과 예방백신 순서로 우선순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질병대책은 차단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차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의례 샤워하고 옷갈아 입는 시설을 의식할지 모르나 그렇지 못한 여건일지라도 병원체 침입의 수단을 구체화하고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만 취한다면 얼마든지 개선의 효과는 거둘 수 있리라 본다.

과거 수년간 시설개선을 위하여 엄청난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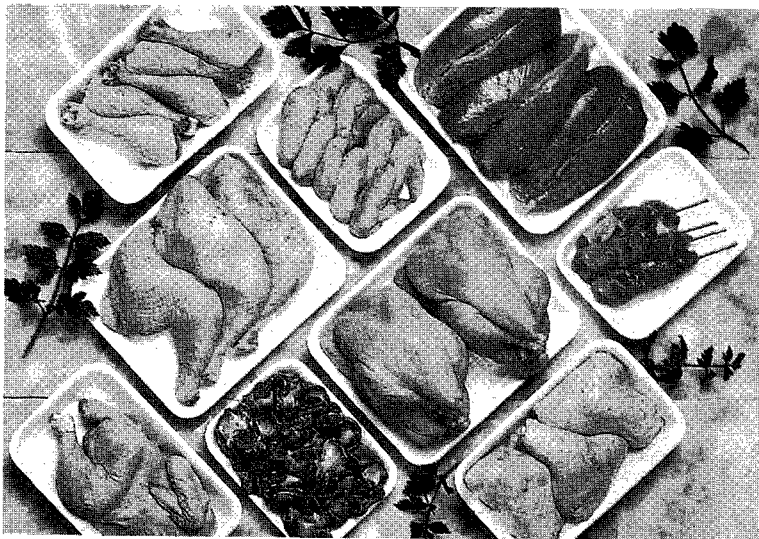
자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등한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인 양계장의 조건과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병아리와 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세계 어느 성적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않을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경제능력검정 계군들의 성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이 해가 갈수록 실감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생산자의 수가 많아 시장 지배력이 약한 1차 산물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탓도 있겠지만 생산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다양화되고 품질이 고급화된 양계산물 제품들의 출현이 가속화되는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무분별하게 투여하는  
각종 항균제들, 육계 휴약사료가  
거의 생산조차 안된다는  
현실 역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로 지적하고 싶다.  
”

그러나 눈에 보이는 다양성이나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위생성이나 안전성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난해 겪었던 쇠고기에서의 대장균 O-157 검출로 인한 파동과 홍콩에서 발병한 조류독감의 경우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홍콩에서 기르는 닭을 모두 도태하였다는 보도는 정확한 전염경로야 어떻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큰 것으로 본다.

숙주가 제한적인 닭 티프스나 추백리도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하는 우리 실정에서 사람

에게 가장 빈번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계란이나 닭고기의 살모넬라 문제를 비롯한 캄피로박터, 리스테리아, 포도상구균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투여하는 각종 항균제들, 육계 휴약사료가 거의 생산조차 안된다는 현실 역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로 지적하고 싶다.

도계위생 역시 재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미국의 도계위생 전문가가 우리 도계장들을 둘러본 후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난 지적 사항들은 일일이 나열할 필요없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시설이나 형식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은 맹탕이라는 내용이었다.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비싼 인건비를 들이면서 도계라인 마다 검사원을 배치하고 도계라인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적당히, 요령껏 해서 통용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스스로 발등을 찌는 우만은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성, 창의력은 결코 입바른 찬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양계업은 농업중에서는 가장 먼저 정부의

보호막으로부터 내던져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앞으로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과제들은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우리의 단련된 체질과 능력으로 결코 극복될 수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제 실천이 따르지 않는 구호는 배제하고 좀더 조직적이고 치밀해져야겠다.

한 두 사람의 지혜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합쳐질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새로운 해를 맞아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댈 때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던가. **양계**

## 빠른 양계 정보 제공 안내

### 주간 양계속보

-주간위 양계관련 최신 정보-

계란, 육계, 병아리, 노계가격, 주간 배합사료 생산실적, 금후 양계산물 가격, 주간위 전망 등

구독료 : (연간) 60,000원

### 난가 변동 FAX통보

-데이콤 메일 400, 팩스로 자동 수신-

수도권 지역 난가 변동시 당일 오전 중 발송, 전국 난가 및 전망사료 수시 송부

이용료 : 연간 누구나 100,000원

\* 구독이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농협 097-01-000953로 송금후, 전화연락 바람. 예금주 대한양계협회